

한국의 주차장은 항상 붐빈다

written by
Moonlight G.

flytothe7388@naver.com

SC1. 작은 자취방 - 이른 아침

20 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 김지유가 숨이 다 죽은 하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잠들어있다. 그녀의 얼굴에선 생기라곤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파리하고 칙칙한 얼굴빛에, 검은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다. 방안에는 그녀의 숨소리만 들릴 뿐, 그 어떤 것도 꿈쩍하지 않고 멈춰있다.

남자 목소리 (V.O)
한국의 주차장은 항상 붐빈다

청천벽력 같은 큰 외침에, 죽은 듯 미동 없이 자고 있던 지유의 눈이 번쩍 뜨인다. 목소리에 깜짝 놀란 그녀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켜 앉고는 주변을 훑훑 둘러본다. 그녀의 눈길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는 촌스러운 아날로그 탁상시계에 닿는다. 시계는 정확히 오전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다. 시계 위쪽 벽면에는 회전 초밥집의 컨베이어벨트 위에 색색깔의 초밥들이 올려져 있는 사진이 담긴 큰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시각을 확인한 그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 놀란 가슴을 추스리는 듯 숨을 고요히 내쉬고 뺨는다. 그녀의 숨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방 안의 온도를 알려준다. 이윽고 얼굴 근육이 점점 풀어지며, 진정된 지유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뿜는다. 그러나 곧, 이완되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크게 찡그려지며, 급히 상체를 움츠린다. 그녀는 손을 멍치 부근에 갖다 대고 고통스러운 듯이 얼굴을 사정없이 구긴다. 곧, 처참한 꼬르륵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운다. 고통을 참는 듯 보이는 그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머리가 어지러운지 침대에서 일어나며 비틀거린다. 힘이 없어 보이는 그녀와는 달리 그녀의 위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계속해서 우렁차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구역들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채, 10 평도 안 될 것 같은 원룸에 침실이며 부엌이며 온갖 살림살이들이 널려있다. 벽지는 베이지색에 몰당은 옅은 갈색인데, 어딘가 칙칙하고 촌스러운 느낌이 든다. 가구들은 모두 새것이라기엔 묘하게 낡아 있었는데, 탁상이나 옷장 같은 곳에는 여기저기 먼지가 끼어 있다.

침대에서 일어난 지유는 균형을 잡으려는 듯이 잠시 서 있다가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벽에는 수십 개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여져 있다. 모두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지만 몇몇 포스트잇에 '후진 주차 요령' 혹은 '평행주차 요령' 등이라고 적힌 글씨를 볼 수 있다.

몇 걸음 후 냉장고 앞에 다다른 지유. 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오른손을 냉장고 손잡이에 가져다 대지만 문을 열지 않고 한참이나 머뭇거린다. 냉장고의 웅웅대는 작동음이 더욱 크게 들려온다. 이윽고 멍하니 서 있던 지유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냉장고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는 고개를 훑훑 돌려 주변을 둘러본다.

그녀의 바로 뒤에 식탁 테이블이 있다. 그 위엔 빈 접시들과 빈 과자봉지, 책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다. 지유가 테이블을 가만히 응시하다 다가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빈 접시들을 바짝 말라 있는 싱크대에 넣어 놓은 뒤, <2021 주차 트렌드> <2020 신 기출 주차문제집> <초라한 내 자동차, 있어 보이게 튜닝하는 법> <고급 레스토랑 주차 가이드>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을 잘 포개어 쌓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는 종이들은 클립으로 묶는다. 그러곤 과자봉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곧 봉지 사이에 빼죽이 나와 있는 빼빼로 하나를 발견한다. 반송장 같던 지유의 눈이 커다래지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입꼬리가 힘없이 올라가며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허겁지겁 과자봉지를 들어 그 속의 빼빼로를 꺼낸다. 빼빼로는 위의 초코

부분이 조금 부서져 있다. 그녀는 입맛을 다시곤 아주 조금씩 빼빼로를 핥기 시작하지만 이내 이성을 잃고 서둘러 오독오독 씹어 먹기 시작한다.

Fade in

Fade out

멍하니 앞을 응시하는 지유의 큰 얼굴이 보인다. 한 팔은 테이블 위에 갖다 대어 몸을 지탱하고, 손은 명치 부근에 올려놓고 있다. 배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녀는 과자봉지를 쳐다보지만, 더 이상 과자는 없다. 그녀가 화풀이하듯 과자봉지를 구긴 후 쓰레기통으로 던진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옆에 떨어진다. 그녀는 잘못 떨어진 쓰레기를 무시한 채,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린다. 냉장고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이지만, 어딘가 절박하고 비참해 보인다. 그녀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냉장고 앞으로 다가간 후,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대곤, 힘없이 눈을 질끈 감는다.

Fade in

시야가 차단되자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지유의 심호흡 소리가 들린다.

Fade out

지유가 눈을 슬며시 뜬다. 그녀의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실망감이 묻어난다. 문이 열린 냉장고는 텅 비어 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지유가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을 요리조리 살피자 문 쪽 칸 가장 아래 생수통에 들어있는 보리차가 보인다. 지유가 허둥지둥 물통을 들어 마신다. 지유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도는 듯하더니 이내 어두워진다. 그녀가 물통을 입에서 떼고 안을 들여다본다. 벌써 반이 없어졌다. 그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통의 뚜껑을 닫는다. 냉장고의 파리한 불빛이 지유의 얼굴에 비치자 그녀의 푸석하고 창백한 피부가 도드라져 보인다. 지유가 자신의 빼쩍 마른 몸을 내려다본다. 그러자 그녀의 미간에 주름이 살짝 생기고 입이 양옆으로 길게 가늘어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지유가 손에 쥐고 있던 물통을 힘없이 짊 쥐다. 그러곤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의자 위의 백팩을 들어 테이블 위의 책들을 전부 쏟아 낸 후 지퍼를 잠근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생각보다 무거운지 질질 끌며 옷들이 어지러이 걸려 있는 행거로 다가간다. 굳은 얼굴로 옷을 이리저리 살피다, 그나마 가장 정장 같아 보이는 검은 재킷과 검은 면바지를 고른다.

어느새 옷을 다 차려입은 지유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 급히 집으로 다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올려둔 보리차 물통을 챙기곤 밖으로 나간다.

SC2. 주차장 입구 - 아침

야외 주차장 입구에 멈춰 있는 회색의 국산 저가 중형차 한 대. 상대적으로 새 연식의 자동차에, 무채색의 액세서리 스티커로 포인트를 줬지만, 여전히 힘없어 보인다. 차 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김지유**. 결코 넓다고 할 수 없는, 중형차 딱 두 대 정도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인 폭의 주차장 입구 오른쪽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화려하고 큰 간판이 있다. 간판에는 “Team Cook’s Restaurant”라는 글자가 네온사인 와이어로 쓰여 있고, 그 옆에는 로고가 그려져 있다. 글자와 로고 아래에는 조그만 얼굴과 기형적으로 큰 눈을 가진 남자와 여자 모델이 활짝 웃고 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지유가 주차장 간판에서 눈을 떴고 넓은 주차장 너머로 보이는 레스토랑을 바라본다. 빈티지 유럽풍의 스타일에, 2층까지 있는 굉장히 넓고 큰 레스토랑이다. 벽은 적갈색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사방은 통유리로 싸여있어 화려한 내관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유리 너머로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지유가 레스토랑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주차장 안으로 시선을 돌린다. 지유의 자리에서 보기에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다. 차를 출발시키기 직전 지유가 갑자기 사정없이 얼굴을 찡그리며 명치 부근을 손으로 감싼다. 점점 숨을 헐떡이며 자기 머리를 핸들 크락션 위로 구부린다.

남자

차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거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고함에 지유가 고개를 번쩍 들고 앞을 응시한다. 멀리 있어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누군가에게 떠밀린 듯 레스토랑 입구에서 쫓겨나오고 있다. 지유가 그를 더 자세히 보려는 듯 목을 쪽 빼고 눈을 찡그린다.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두 명의 경호원이 딱 하니 지키고 서 있다.

경호원 1

그럼 차를 사세요! 저희는 주차도 하지 않은 사람을 들이지 않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소리치고 난 후, 경호원 둘은 문을 탁 닫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남자

돈이 없는데 차를 어떻게 샅니까!

쫓겨난 남자는 입구를 향해 한 번 더 소리치고는 고개를 돌려 터덜터덜 레스토랑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나온다. 지유는 황급히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다. 그녀의 눈에 조수석 위에 어지러이 퍼질러져 있는 주차와 자동차에 관한 책들이 들어온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자신의 훌쭉한 배로 가져다 댄다. 그리곤 비장한 표정으로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한 뒤, 차를 운전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다.

SC3. 주차장 - 오전

심각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레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김지유. 미간에 깊은 주름이 져 있고, 앞을 잘 보려는 듯 눈을 찡그리고 목을 거북처럼 쪽 빼고 집중하고 있다.

혜영(V.O)

...후진 주차는 속도보다 각도가 더 중요하죠. 경쟁차가 다가온다고 흔들리지 말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대시보드 위에 고정된 휴대폰 스크린 안에는, 적당히 화려한 옷을 입은 예쁘장한 인터넷 강사, 혜영이 주차에 관한 열띤 강의를 펼치고 있다. 강사가 “...그때 재빨리 기회를 잡으셔야...”라는 말을 내뱉자, 지유의 집중이 흐트러지며 고개가 잠시 휴대폰으로 향한다. 지유가 입을 조금 벌려 이를 악문다.

그녀가 다시 전방을 주시한다. 그러나 주차장은 빈자리 하나 없이 뺨뺨이 차 있다. 지유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한 번 내뱉은 뒤 이를 으득 간다. 핸들 위의 손이 잘게 떨린다. 그녀의 배에서 아주 커다란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 사이로 그녀가 들릴 듯 말듯 아주 조용히 욕지거리를 중얼거리며 자신과 함께 주차장을 도는 다른 차들을 바라본다. 그녀가 마음이 급해졌는지 엑셀 위의 발에 힘을 조금 더 준다. 차가 조금 더 빨라진다.

혜영(V.O)

...빨리 주차해야 한다고 괜히 속도 내서 내달리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세요. 그게...

‘앗’하는 소리와 함께 지유가 곧바로 강사의 조언에 따라 엑셀에서 발을 떼고 차의 속도를 늦춘다. 속도를 늦추자 지유의 창밖으로 뺑뺑이 주차된 수많은 차가 하나하나 보인다. 다양한 연식, 색깔, 기종의 차들이 있다. 지유는 매서운 눈초리로 다른 차들을 분석하듯 눈여겨본다. 연식이 꽤 된 차가 새 차보다 훨씬 많다. 조수석에 쌓여있는 책들이 지유의 분석력을 보증해준다. 적당히 오래된 차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오래 주차되어 있었던 것 같은 차는 없다. 하지만 지유는 구석 자리에 모여있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검은색의 고급 외제 차들을, 그 중에서도 아주 비싼 편에 속하는 차들을 발견해낸다. 얼마나 오래 주차되어 있었는지 나뭇잎이 없어져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다. 지유는 눈가를 잘게 일그러뜨리며 혀를 꼰꼰 찬다.

우욱- 위산이 역류하자 지유가 급하게 입을 틀어막으며 오만상을 찌푸린다. 그리곤 오른손으로 위 부근을 부여잡고 왼손은 입에서 뱀 뒤 페트병에 담아온 보리차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속을 달랜 지유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주시한다.

지유
어!

지유의 눈에 차가 없는 빈자리가 들어온다. 딱정벌레를 닮은 작은 열은 노란색의 동글동글한 차와 평범한 은색의 국산 차 사이다. 지유의 눈이 번뜩이며 순간 환희로 가득 찬다. 지유는 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인터넷 강사 혜영을 향해 한번 웃어 보인 뒤, 빈자리를 주시하며 속도를 늦췄다. 집중하는 지유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그녀는 빈자리의 선과 일정 간격을 띄운 뒤에 조심스레 핸들을 꺾기 시작한다. 차의 바퀴가 슬쩍 돌아간다. 그러나 차가 제대로 후진하기도 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색으로 튜닝한 고급 외제 차가 나타나 난데없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곤 번개처럼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해버린다. 심지어 주차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넓다 박아버려서 그 좁은 공간에 용케도 대각선으로 대어 있다. 천천히 각도를 맞추고 있던 지유로서는 차마 무어라 반응할 시간조차 없는 순식간이다.

혜영(V.O)

여기서는 45도 각도로, 어깨라인을 기준으로...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혜영의 목소리가 지유의 귀에 웅웅 울린다. 멍하니 상황 파악을 마친 지유가 손을 들어 혜영의 강의를 꺼버린다. 꺼져 어두워진 스크린에 지유의 잘게 떨리는 손이 비친다. 차 안이 조용해진다. 자신의 자리를 뺏은 고급 외제 차 쪽에서 누군가가 차 문을 닫고 레스토랑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간간이 구구거리는 비둘기 소리도 들린다. 지유는 굳이 고개를 돌려 그가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핸들과 계기판 사이의 어딘가만 가만히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곧이어 발소리마저 사라지자 주변이 아주 고요해진다. 그저 지유의 뺏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만 들릴 뿐이다. 곧 그 소리마저 멈추곤 질식할 듯한 정적이 그녀를 덮친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손끝을 피멍이 들 정도로 짚어댄다. 상념에 잠겼던 지유가 머리를 한번 세차게 흔들다 어지러움에 잠시 오른손으로 머리를 짚더니 그 손으로 곧장 앞쪽의 라디오를 켜다. 사회 뉴스 채널이 흘러나온다.

남자 아나운서(V.O)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더 이상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한 남성의 목소리가 조그만 차 안을 가득 채운다. 지유는 창문을 열고 조용한 공기를 크게 들이쉬 후, 후진 모드에 있던 변속 기어를 주행모드로 밀어 넣고는 다시 차를 출발시킨다. 차의 바퀴가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한다.

SC4. 주차장, 한낮

내리쬐는 한낮의 햇빛을 정통으로 맞고 있는 **지유**의 앙상한 큰 눈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쾅한 짙은 갈색 눈동자는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지만, 속이 빈 듯 행하고, 눈 아래로는 다크써클이 짙게 내려와 있다. 어느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작게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 떨어진다. 눈물이 얼굴을 기어가는 느낌이 들자 화들짝 놀란 지유가 앞에 달린 선바이저를 내리며 눈물을 꼭 참는다.

레스토랑은 런치 타임을 맞아 분주한 분위기로 변해있다. 음식을 나르는 직원이나 마땅한 자리를 찾아 다니는 손님들 등, 실내에서 사람들이 잔뜩 왔다 갔다 한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새벽부터 식사하고 있던 같은 사람들이다. 몇몇은 안 보이고, 새로운 젊은 얼굴 몇몇은 왜인지 직원이나 손님들한테 깽뚝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레스토랑 밖을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지유는 레스토랑을 한번 노려보고는 핸들을 잡고 가만히 앞을 바라본다. 마치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사실 그녀의 눈은 분주하게 주차장 여기저기를 훑고 있다.

조그만 회색 일본산 차가 눈에 띈다. 특이하게도 그 차는 조그만 덩치치고는 최선을 다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연식의 모델이지만 광이 나지 않는 표면과 구부러져 있는 와이퍼, 가장자리의 철이 벗겨진 번호판, 곳곳의 스크래치 때문에 여기저기 낡은 느낌을 준다. 지유는 못마땅하다는 듯 찻찻 혀를 차며 회색 차를 가만히 바라보다 어느새 안쓰러운 연민의 표정을 보낸다.

그녀가 눈을 돌리자 이번에는 베이지색의 커다란 미국산 승용차가 들어온다. 그 차 또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회색 일본 차보다는 멀쩡해 보인다. 최상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햇빛을 받은 베이지색의 표면이 깨끗해보이며 웬지 2000년대 미국 영화의 중산층 가족이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지유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지만, 힘이 없어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는지 그저 인상만 쓰고 있을 뿐이다. 라디오에서는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남자 아나운서(V.O)

…젊은 운전자들의 꿈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CY 레스토랑은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경비 효율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 차들을 30 퍼센트가량 더 적게 받겠다며…

지유는 그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가만히 무언가를 생각하다 고개를 들고 기어를 주행모드로 밀어 넣는다. 그녀는 전에 비해 훨씬 익숙한 손놀림으로 핸들을 돌리며 기계적으로 주차장을 누비고 있다. 코앞만 바라보던 이전과 달리 넓어진 시야로 전방 전체를 주시한다. 어느새 빨간색의 조그만 국산 차가 그녀의 차 뒤로 달라붙는다. 차에 비해서 큰 덩치의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운전하고 있다. 백미리에 폭 담길 정도로 조그만 차를 보며 지유가 코웃음을 한번 친다. 빨간 차는 비켜 달라는 듯이 그녀의 차 오른쪽으로 접근해온다. 그러나 지유는

속도를 조금 더 내어 그의 앞을 막아버린다. 그녀는 충혈된 빨간 눈으로 백미러를 한번 노려보고 앞을 다시 노려본다. 이를 뿌듯 같자 섬뜩한 분위기마저 풍긴다. 그녀는 한층 속도를 높여 달린다. 전방에 코너가 보이지만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과격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 정신없는 찰나에도 지유의 눈에 빈 자리가 들어온다. 작은 나무들이 줄로 세워진 가드레일 옆 구석 비어 있는 자리다. 그 주변으로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차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주인 없이 남아 있다.

그녀는 빈자리와 그 주변을 배회하는 차들을 번갈아 보며 눈을 번뜩인다. 여유가 생긴 건 지 빈정대는 듯한 웃음까지 흘리며 속도를 더욱 높여 빈자리로 다가간다. 차가 자리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빈자리 끝에 ‘스’ 자로 놓여 있는 네모 나무판이 들어온다. 지유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하얀색이 칠해진 거친 질감 표면의 나무판에 붙여진 A4 지 위의 빨강고 큰 고딕체의 “예약석”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미간을 의아스럽게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하는 지유.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차를 멈춘다. 얇은 숨소리를 제외하곤 고요한 가운데, 뒤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쇠 파이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이윽고 차장 밖에 왜소해 보이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중년남성**이 나타나더니 차창을 두드린다. 그는 오래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목 주변이 살짝 누려져 있다. 지유가 그쪽으로 고개만 돌린 채 창문을 내린다.

중년남성

(손사래를 치며) 아가씨, 여기 주차 안 돼.

지유의 미간이 더욱 깊이 찌푸려진다.

지유

(얼굴이 점점 빨개지며) 뭐 소리예요. 예약석이라니. 주차장에 예약석이 어딴어요?

중년남성

(귀찮다는 듯이) 아 여기는 이번에 차 안 받아.

지유

(언성이 조금 더 높아지며)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에 예약을 왜 받냐고요!! 누가 들어오는데요?

근래 제대로 밥도 못 먹어 기운 없던 좀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그러나 화는 내는 모습이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어딘가 어색하다. 중년남성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말없이 ‘주차 금지’라는 뜻말이 위에 붙은 기다란 쇠 파이프를 끌고 ‘예약석’ 표지판 앞에 딱하니 두고는 빠른 걸음으로 획 사라진다.

그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 한 지유는 살집 없는 쾅한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입을 삐꺼거린 채 굳어 있다. 그녀가 예약석을 바라보며 얼어 있는 동안 그녀의 차 옆으로 다른 차들이 빠르게 썩 지나간다. 지유의 표정이 황당함에서 절망감으로 바뀐다. 그녀가 핸들에 머리를 박고 눈을 감는다. 화난 표정이 점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변한다. 어느새 눈물이 불을 타고 흐르자 자동차 시트를 쥐어뜯는 지유. 시트가 비틀리며 손가락과의 마찰음을 내자 한참이나 핸들에 고개를 박고 있던 지유가 정신이 번쩍 든 듯이 핸들에서 고개를 떼고 시트를 확인한다. 비닐이 살짝 뜯긴 자동차 시트. 그걸 본 지유가 탄식하며 재빠르게 비닐을 문질러 뜯긴 부분을 숨긴다. 하지만 되돌려지지 않는 시트를 보며 큰 한숨을 한번 쉰다. 마스크라로 얼룩진 눈가를 쓱 닦아 눈가 상태를

악화시키며 고개를 옆으로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통유리 속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식사하는 사람들. 그중 창가석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는 가족이 눈에 띈다. 고급스러운 옷을 걸친 **부모**와 어린이 정장을 입은 해맑은 **남자아이**들.

눈꼬리와 입꼬리가 치지며 그녀의 얼굴이 아련해진다. 눈물이 내려는 듯 코끝과 눈가가 빨갱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첩 앱을 연다. 맨 위로 스크롤 한 후 사진을 클릭하자, 교복을 입은 옛된 지유와 그 옆 꽃다발을 들고 있는 **그녀의 엄마**가 있다. 둘 다 행복해 보인다. 화면 위를 손가락으로 쓰는 지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울먹임을 멈춘 후 결심한 듯 눈을 치켜뜬다. 휴대폰 화면을 끄곤 조수석 쌓인 책들 위에 올려둔다.

지유가 끝이 빨갱게 피멍이 들어 있는 오른손을 운전대에 올리곤, 또렷한 시선으로 앞을 노려본다. 차가 **빹빹**이 주차되어 있다. 한낮과는 다른 오후의 햇빛이 지유의 눈을 공격한다.

SC5. 주차장, 오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유**의 얼굴. 기름에 전 긴 옆머리가 이마에 딱 붙어있다. 그러나 이미 이 상황이 익숙한 듯 표정은 무덤덤하다. 시계는 어느새 3 시를 가리키고 있다. 밖은 짹짹하던 햇빛이 수그러들어 살짝 어두운 느낌을 준다. 천천히 운전하던 지유의 눈에 하얀 동그라미에 빨간 빗금 하나가 그어져 있는 제한 표지판이 들어오자 그녀가 지겹다는 듯 눈알을 위로 굴린다. 이윽고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눈을 감는다.

지유의 환상 시작:

지유의 차가 갑자기 붕 뜨더니 차창 밖으로 여러 차와 빈자리의 표지판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둥둥 떠 지나간다. 대부분 동그라미 혹은 네모 판때기의 형태에 빨간 테두리가 칠해져 있다.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홍색의 빈 공간에 무지갯빛의 연기 혹은 파스텔 빛의 오로라들이 일렁여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준다.

차창 오른쪽엔 “연식 제한 - 제조일로부터 5년 미만” “무채색 차량 우대” “중형차 이상 우대” “캠핑카 주차 불가” 등의 표지판이 떠다니고 그에 조건이 맞는 다양한 차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지유의 운전석에 있는 왼편 차창에는 “노란색 혹은 분홍색 차량 주차 불가” “주차 경험 5년 이상” “외제 차 우대 칸” “5톤 이상 화물차 전용칸” 등이 적힌 표지판이 지나가고 조건에 맞는 종류의 차들이 해당 표지판들을 따라다닌다.

꿈을 꾸는 듯 눈을 슬로우모션으로 깜빡이는 지유의 평온한 모습. 그녀는 앞을 주시하며 열심히 악셀을 밟아대지만,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둥둥 떠 있을 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덤덤한 지유.

갑자기 어디선가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세찬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다. 앞에서부터 세찬 물결이 작은 쓰나미처럼 지유의 차를 향해 돌진한다. 어느새 차창 밖으로 세찬 물결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지유의 차 뒤에서는 커다란 승어들이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온다. 그러나 승어들은 표지판이나 차들을 맞닥뜨리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머물러 있거나, 밀려 아래로 떨어진다. 시끄럽게 치직거리는 소리에 취해있는 지유. 그 소리는 점점 사람의 말소리로 변하더니 어느새 지유의 주변이 다시 주차장으로 바뀌어있다.

다시 현실:

남자 아나운서 (V.O)

...했습니다. 이번 상반기 주차장의 수요는...

주차장 길가에 멈춰있는 자유 차의 옆으로 다른 차들이 열심히 지나가고 있다. 꿈에서 깬 듯 얼떨떨한 자유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다시 차를 출발시킨다.

SC6. 주차장, 늦은 오후

해가 질 준비를 하며 다소 어둑해진 하늘. 전등을 켜 안이 훤히 보이는 차 안에 50 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운전석에 앉아 부산스럽게 무언가를 챙기고 있다. 그로부터 5 미터 정도는 떨어져 있는 자유의 차는 주차장 도롯가에 정차되어 있다. 기대에 차 그를 주시하는 *자유*. 그녀가 설레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다.

Fade in

Fade out

다시 눈을 뜬 자유의 얼굴. 멀리서 보는 아저씨는 뭔가를 찾는 건지 여전히 부산스럽게 조수석 앞 캐비닛을 뒤진다. 그녀가 시계를 확인한다. 5시 40분. 자유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아저씨의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과 그의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황빛이 보인다. 자유가 시동이 꺼져 있는 본인 차에 매달려 있는 차 키를 본다. 다시 아저씨를 바라보는 자유. 어깨를 한번 으쓱하곤 표정이 다시 편안해진다. 그녀의 눈꺼풀이 축 처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잠이 든다.

Fade in

SC7. 주차장, 이른 저녁

Fade out

졸고 있는 자유의 큰 얼굴. 라디오 소리가 커진다.

여자 아나운서 (V.O)

...알에이에스 리서치에 따르면 약 60 퍼센트의 주차장들이
장애인석과 임산부석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자유*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뜬다. 본인이 졸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지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시계를 확인한다. 6시 3분. 눈이 휘둥그레진 그녀가 고개를 획 쳐들고는 앞을 본다. 몸을 완전히 숙이고 무언가를 하는 *아저씨*가 여전히 보이자 안심한다. 그 순간 아저씨가 몸을 일으키며 환호하듯 기뻐한다. 손에는 은색의 조그만 물체가 들려있다. 자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더니 얼굴이 환해진다. 환호하는 그와 함께 기뻐하는 자유. 그가 어질러 놓은 차를 빠르게 수습하고 조그만 은색 물체를 든 손을 계기판 가까이 향하자. 자유도 초집중 상태로 침을 꿀꺽 삼키고 입가의 침을 닦는다.

그러나 아저씨는 차를 출발시키긴커녕 조수석에서 가방을 챙겨 들고 차 문을 연다. 자유가 당황하며 그의 차 주변을 살피듯 눈알을 굴린다. 그는 왼 다리를 바닥에 짚고 몸의 반을 뺀 상태로 주변을 한번 훑 돌아본다. 굉장히 불안한 듯한 자유. 곧이어 아저씨가 차에서 완전히 내려 차 문을 잠근다. 문이 잠긴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유유히 레스토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여자 아나운서 (V.O)

...의 질문에 이 대표는 “방심은 금물”이라며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장 속에 거의 들리지도 않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커지며, “방심은 금물”이라는 코멘트가 지유의 귀에서 윙윙 울리며 반복된다. 한동안 충격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지유의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숨이 점점 가빠진다. 물 밖의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이던 그녀가 갑자기 명치 부근을 부여잡으며 고통에 신음한다. 자세를 낮추고 숨을 몰아 내쉬던 그녀가 급하게 차 문을 열고 아스팔트 위에 구역질한다.

먹은 게 없어 그런지 탁한 위액 조금을 제외하고는 무엇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몇 번 더 헛구역질한다. 덕분에 눈에서 눈물만 잔뜩 흘러내린다. 속이 조금 진정되자 그냥 차 문은 열어 둔 채로 바로 앉는다. 숨을 얇게 고르며 울먹이던 지유가 있는 힘껏 소리를 뱉 지른다. 갈라져 힘없는 목소리. 주변에 차들이 지나가든 말든 그녀는 큰소리로 아이처럼 영영 운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고, 차들은 그녀 옆을 지나쳐간다.

중년 남자

...이런 저출산 시대에 큰일을...

조금 진정이 된 지유의 뒤쪽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온다.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회색 양복을 입은 170cm 쯤 되어 보이는 50 대 남자가** 조그만 핑크빛 소형차의 열린 운전석 문을 부여잡고 힘겹게 서 있는 **키가 작은 30 대 중반의 임신부**에게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지유가 눈을 본능적으로 가느다랗게 뜬다. 그러나 말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곧이어 둘의 옆으로 상향등을 켜 회색 중형차 한 대가 비스듬히 길을 막고 서더니, 그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키가 180cm 는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려 둘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이해 안 간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는 지유의 큰 얼굴. 중년 남자가 밟고 서 있는 건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그어진 다른 주차 자리와 달리 분홍색으로 칠해진 임신부 전용 주차석이다. 그 자리는 비어 있지만, 분홍색 소형차의 위치를 보아 임신부가 조금 전까지 그곳에 주차해 있던 자신의 차를 이제 막 뺀 것처럼 보인다. 지유가 눈을 더욱 게슴츠레 뜬다. 중년 남성이 젊은 남자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무어라 말한 뒤 여자를 향해 웃어 보이며 악수를 청한다. 임신부가 고개를 한번 푹 떨구더니 그와 악수하자,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 여자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 그녀에게 악수를 청한다. 악수를 마친 젊은 남자는 자신의 차에 다시 올라타더니 재빠르게 분홍색 금이 그어진 임신부 주차석에 주차한다. 그러자 임신부가 얼굴을 자신의 커다란 손에 묻고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낀다.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 중년 남자가 그를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둘은 한 번도 임신부를 뒤돌아보지 않는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지만, 임신부는 한참이나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흐느끼다 결국 차를 타고 배웅해주는 이 하나 없는 주차장을 쓸쓸히 떠난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지유가 갑자기 한 번 더 헛구역질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녀는 멍하니 아스팔트를 바라본다. 사람들이 떠난 후 잠시 고요했던 주차장의 적막을 뚫고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나이 든 남자의 갈라지고 쉰 비명이 들려온다.

60 대 초반 남성 (V.O)

으아악-

지유의 고개가 조금 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리가 다소 희끗희끗한, 허름한 등산복을 위아래로 맞춰 입은 **60 대 초반 남성**이 자기 머리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절규하고 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옅은 파란색 중형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뒤 범퍼가 사정없이 찌그러진, 갈색의 고물차가 밀려나 있다. 남성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전기차에 가까이 다가가 운전석을 향해 무어라 외친다. 인기척에 차 안의 불이 켜지자 그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친다. 휘둥그레진 지유의 큰 눈. 안이 흰히 보이는 차의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다. 그 차와 맞붙어 있는 바로 뒤 칸은 비어있다. 더욱 휘둥그레지는 지유의 큰 눈 그러나 곧이어 실망감에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뒤 칸에 앞차와 똑같은 디자인의 중형 전기차가 무인 자율주행으로 들어와 주차한다. 불이 켜져 있는 안으로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보인다.

지유가 다시 눈을 돌려 젊은 할아버지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본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체념한 채 서 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겨우 잠그더니 왼쪽을 주시한다. 지유도 그를 따라 시선을 살짝 들어 올린다.

SC8. 분식집 주차장, 저녁

작고 허름한 주차장. 그 안에는 총 8 석이 있고 그중에 5 석이 고물 트럭들로 차 있다. 차들은 전부 국내 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고급 외제 차는 전혀 아니다. 그 끝의 중앙에는 옛날 건물의 허름한 분식집이 있다. 하늘색의 슬레이트 지붕에 궁서체로 ‘미도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이 올려져 있고, 가게 자체는 꽤 큰 편이지만 베이지색의 벽에는 군데군데 금이 가 있다. 은색의 철문은 미닫이문이고 그 문의 불투명한 창문에는 ‘김밥’ ‘떡볶이’ ‘라면’ 등의 메뉴가 페인트로 적혀 있었다. 안은 오징어잡이 배처럼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얀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다. 건물 주변에는 바가지며 향아리며 널려 있다.

미닫이 철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그 안에서 *머리도 피부도 전부 희끗희끗한 키가 작은 노부부가 젊고 키가 큰, 갈색 톤의 피부와 짙은 쌍꺼풀이 있는 남자의* 양팔을 잡고 나온다. 젊은 남자가 짧은 한국어로 “내가 왜요?” “나 안 가요.” “나 아직 김밥 다 못 먹었어요.” 등을 열심히 말하지만, 노부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그를 끌고 나간다. 그는 힘이 세 보임에도 그는 순순히 끌려간다. 노부부는 그를 구석에 주차된 먼지가 잔뜩 쌓인 노란 트럭에 집어넣고는 발로 차 문을 두 번 쿵쿵 친다. 그러자 트럭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곧이어 광이 나는 깨끗한 새 차가 입구로 들어온다. 방금 나간 트럭과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번엔 짙은 녹색이다.

SC9. 주차장, 저녁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지유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찌그러진 자신의 고물차에 올라타고는 그 허름한 분식집으로 향한다.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지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유가 또다시 헛구역질하고는 얼른 차 문을 닫는다. 그녀가 조수석 창을 통해 커다란 레스토랑을 바라본다. 주황빛의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스테이크를 썰어 먹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지유가 다시 숨을 헐떡인다. 웅얼거리는 라디오의 볼륨이 잠시 커졌다 다시 줄어든다.

여자 아나운서(V.O)

…평균 200 번을 도는 것으로…

지유가 눈을 꼭 감고 고개를 꼭 숙인 뒤 양팔로 자기 몸을 끌어안고 가만히 앉아 있자 점점 진정되기 시작한다. 고개를 들자 찻잔 전 눈에 눈물이 살짝 고여 있다. 그녀가 방금의 그 허름한 분식집의 방향을 한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자신이 들어온 주차장의 입구 쪽으로 눈을 돌린다.

회상 시작:

이른 새벽, 지유가 운전하고 있다. 주유소를 지나치자 곧 365 일 할인마트와 24 시 편의점이 나타난다. 안에는 캐셔를 비롯한 네댓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도로 가 옆에 세워진 그 가게들 주변엔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1 대와 자전거가 몇 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은 없다.

다시 현실:

지유가 힘없는 한숨을 한번 쉰 뒤, 시동을 걸고 핸들에 손을 올린다. 그 순간 *띠링-* 하는 휴대폰의 알림음이 들린다. 지유가 핸들에서 손을 내려놓고 시동을 끈 뒤,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휴대폰 화면에는 ‘엄마’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다. 지유가 메시지를 클릭하자, ‘딸, 요즘 안 그래도 주차난인데, 자리 찾느라 힘들지? 이번 주에 한 번 내려와 삼계탕 해줄게.’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지유의 눈썹이 티 나게 축 처지더니 힘없이 눈물이 흐른다. 휴대폰 화면 위에 눈물이 떨어져 ‘삼계탕’이라는 글자가 눈물방울에 확대되어 보인다.

그녀가 한참을 휴대폰 화면에 나와 있는 발신인 ‘엄마’를 응시하더니 휴대폰을 한번 꼭 껐안는다. 그리고 눈물로 뿌예진 눈가를 훔치곤 시간을 확인한다. 7:07 pm. 그녀는 웅얼거리는 라디오를 끈 후, 변속 기어를 P에 밀어 넣고 차량 내부등을 끈다. 은은한 주황빛이 힘없이 지유의 파리한 얼굴을 비춘다. 차 내부는 조용하다.

지유가 조수석에 서로 어지러이 파묻혀 있는 주차 요령 참고서들을 들어 올린다. 그 중 <고급 레스토랑 주차 가이드>를 꺼내어 펼친다. 책에는 여기저기 노란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 집중하며 글자를 읽는 지유. 곧 그녀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운전석 의자를 뒤로 밀고 핸들에 책을 기대어 본격적으로 공부할 자세를 취한다. 뒤에서 다른 차들이 지나가며 지유를 향해 크락션을 빵빵 울린다. 베이지색 아기자기 예쁜 소형차, 검은 대형 벤, 노란색의 화려한 고급 외제 차, 은색의 흔한 국산 중형차가 그녀의 차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간다. 집중하던 지유가 슬쩍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한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기 시작하더니 끝내 책을 잠시 내려놓고는 차량 에어컨 뒤 핸드폰 거치대에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고정한다. 그리고는 인터넷 강의를 재생한다. 휴대폰 스피커로 혜영의 아무진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혜영

...고작 그거 공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휴대폰 화면 속, 어지러이 무언가 잔뜩 써진 초록색 칠판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잔소리하는 *혜영*. 지유는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책을 들어 올려 읽기 시작한다.

혜영(V.O)

...누구는 같은 책을 50 번 복습...

지유의 차 옆으로 차들이 쌍쌍 지나간다.

SC11. 주차장, 밤

노란 분필로 칠판에 무어라 열심히 적어가며 열변을 토하는 휴대폰 화면 속 *혜영*.

혜영쌤

여러분 비싼 외제 차가 내 앞에 오면 쫓죠? 그러지 마세요. 주차는 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기술이야.

고개를 책에 박고 있던 지유가 책을 소리 나게 탁 덮고는 고개를 획 쳐든다. 몇 시간 전과는 달리 자신감에 차 있다. 그녀가 휴대폰을 터치해 시각을 확인한다. 9:03 PM. 차량 내부 등을 끄고 전방을 주시한다. 고요한 차 안만큼이나 주차장도 꽤 한산하다. 저 멀리 검은색 차와 하얀색 차 두 대만이 자리를 찾아 조용히 돌아다니고 있다. 지유의 시각이 점점 어둠에 적응해간다.

지유가 차를 천천히 출발시킨다. 채 20m도 지나지 않아 줄지어 주차된 차들 사이로 움푹 팬 빈 곳이 눈에 들어온다. 지유는 속도를 더욱 늦추면서 눈을 비빈다. 양옆 고급 외제 차 사이 빈자리가 시야에 똑똑히 들어온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이 떨릴 정도로 핸들을 꽉 잡는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니 주인 없는 빈자리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바닥에 흥건한 기름이 좀 전까지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유는 선볼리 다가가지 않고 주변을 살핀다. 저 멀리 조용히 돌아다니는 검정 외제 차 하나를 제외하고는 주변엔 사람도, 다른 차들도 없다. 고요히 주차된 차들뿐. 지유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올라간다. 그녀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으로 굳어진 것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저 멀리 불이 환히 켜진 레스토랑을 슬쩍 넘어다보곤 다시 정면을 바라본다.

지유가 앞좌석 양 창문을 전부 내린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액셀을 살짝 밟자 차가 아주 천천히 출발한다. 빈자리를 조금 지나쳐 차를 세운 다음 바닥의 주차 칸 금과 자신의 타이어 선을 번갈아 확인하곤 후진기어로 바꾼다. 그리곤 핸들을 한쪽으로 전부 꺾고 천천히 후진하자, 차가 돌아가며 빈자리의 양쪽 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기 시작한다. 지유의 표정이 급격히 상기되며 호흡이 가빠진다. 입꼬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

셰프 차림의 중년 남성

아악! 잠시만!!

그러나 곧이어 들려오는 다급한 남성의 비명에 지유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백미러를 확인한다. 어둠 속에서 후면등 빛에 눈을 찌푸린 채 긴 막대를 들고 서 있는 40대 중반 남자가 보인다. 그는 머리에 검은 요리사 두건을 두르고, 하얀 세로줄 무늬의 검은 요리사 앞치마를 입고 있다. 키는 165cm쯤 되어 보인다. 지유는 귀신이라도 본 듯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얼어 있다. 그녀의 차도 어중간하게 비스듬히 멈춰있다.

지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N(중립)에 넣는다. 아저씨가 운전석의 지유에게 가까이 다가와 선다. 지유도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가만 보니 남자가 들고 있던 막대는 페인트를 칠하는 롤러 브러쉬다. 나머지 손에는 검정 페인트 통이 들려 있다. 지유가 그의 셰프 복장과 페인트를 번갈아 보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인상을 쓴다. 남자는 지유의 시선을 피한 채 입을 연다.

셰프 복장 중년 남성

저... 아가씨 미안해요. 이 자리 방금 없어졌어요.

남성이 미안한지 머쓱하게 웃으며 지유를 쳐다본다. 눈가의 주름이 진해진다. 지유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 황급히 차에서 내려 바닥을 확인한다. 남자가 서 있는 쪽의 하얀 주차선이 검정 페인트로 덮여 조금 짧아져 있다. 지유의 팔이 힘이 빠진 듯 툭 떨어진다. 그러나 곧 주먹을 꽉 쥐더니 아저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으르렁거린다. 둘의 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지유가 1cm 정도 더 작다.

지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막 주차하려고 했는데.

셰프 복장 중년 남성

(당황하며 눈이 동그래진다) 미안해요... 이번 달엔 여기 주차 안 받기로 했어요.

아저씨가 본능적으로 지유를 저지하듯 양손을 그녀 쪽으로 펼치며 말을 잇는다.

셰프 복장 중년 남성

(생각났다는 듯 그녀를 달래며) 아! 그래도 아마 내년엔...

지유

(크게 씩씩거리며) 그게 무슨 말이야!!

지유가 아저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다. 그 순간 멀리서 ‘멈춰!’라고 말하는 우렁찬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둘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간다. 멀리서 키가 아주 큰,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아주 긴 막대기를 한 손에 들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지유를 아저씨에게서 떼어 놓는다.

지유가 핏발 선 눈으로 그를 쫓아보지만, 젊은 남성은 감정 없는 완벽한 무표정을 유지한다. 그는 30 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남이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운영종료’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표지판이다. 꽤 무거워 보인다. 글씨를 읽은 지유의 눈이 뒤집힌다. 그녀가 욕을 내뱉으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한다.

지유

(소리 지르며) 여기 내 자리야. 내가 발견했던 말이야!!!

지유의 급발진에 당황한 중년 남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휴대폰을 꺼내 들어 112를 누른다. 그러나 옆의 젊은 남자가 조용히 그를 저지한다. 아저씨가 어리둥절하며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자, 젊은 남자가 그의 귀에 무어라 속삭인다. 이윽고 아저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페인트통을 들고 가 하얀 주차장 선을 지우기 시작한다.

젊은 남성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만 하세요’라며 순식간에 지유의 두 팔을 뒤로 포박한다. 지유가 ‘이거 놔!’ 외치며 발버둥 치지만 소용없다. 곧 지유가 ‘옥’ 하는 신음과 함께 상체를 구부리며 조용해진다. 그녀는 에너지를 모두 잃은 사람처럼 축 처진다. 남자가 그녀에게서 손을 떼자 지유가 두 손을 위 부근에 가져다 대어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듯 숨을 고른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

이름이 뭐죠?

건조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지유의 고개가 들린다. 남자의 얼굴을 마주한 지유가 겁에 질린다. 남자의 조각같이 반듯한 얼굴은 가로등의 파리한 불빛을 받아 한쪽은 푸르게 빛나고 나머지 한쪽은 어둠에 잠식당해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감정이 없는 무표정을 유지한다.

지유

(홀린 듯) 김... 지유...

양복 입은 젊은 남자

(예의 바르지만, 기계적인 말투로) 지유 씨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알아요.

남자의 무미건조한 말투에 지유의 얼굴에 체념한 빛이 떠오르더니 눈물이 펄펄 쏟아진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지유가 흐느낀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

우릴 봐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젊은 남자는 지유와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지유는 고개를 숙이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노력한다. 껍껍대는 지유의 울음소리와 남자의 차가운 음성만이 주차장을 채운다. 주변엔 지나가는 차가 아무도 없다. 젊은 남자가 멀리 보이는 레스토랑을 힐끔 본다. 여전히 따스한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안에는 몇 시간 전보다 덜 붐비는 것 같다. 식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몇 명만 왔다 갔다 하며 마감 정리를 하는 듯 보인다. 그는 다시 지유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

(지유의 차를 바라보며) 그런데 지유 씨가 기다리면 여기 또 금방 자리 나올 거예요.

지유

...배고파요...

축 처져 바닥만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키던 지유가 입을 열지만, 젊은 남자가 묵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

그런데 지유...씨가 여기서 이러면, 우리는 지유 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지유 씨는 여기 주차를 못 할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러면 '우리' 레스토랑에서 밥도 못 먹겠죠? (몸을 숙여 자신보다 키가 작은 지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렇죠?"

지유는 시선을 떨군 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며 긴 다리로 빈자리에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지유 차 바로 뒤에 핏말을 푹 놓는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

(지유를 지나치며) 그럼, 또 봐요.

남자가 지유를 지나치며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작별 인사를 내뱉는다. 막 페인트칠이 끝나고 둘에게 다가온 아저씨가 지유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서 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를 따라간다.

그들이 떠난 뒤 지유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다. 주변은 고요하다.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없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작게나마 들렸던 귀뚜라미 울음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오는 레스토랑을 등지고 서 있는 지유는 역광 때문에 어둡게 보여 표정을 가늠할 수 없다.

하얀 금이 지워진, 운영이 종료된 자리엔 채 마르지 않은 검은 페인트가 가로등 조명에 반짝인다. 차안에 있는 지유의 휴대폰엔 메시지 알림이 와있다. 시각은 9:20 PM 이다.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던 지유의 귀에 바스락대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조금 전의 중년 아저씨다. 똑같은 차림이지만 급하게 왔는지 두건이며 앞치마가 흐트러져 있다. 그가 들고 있던 하얀 비닐을 그녀의 손에 들려준다. 지유가 가 멍한 표정으로 비닐을 만지작거린다.

셰프 복장 중년 남성

(지유와 눈을 맞추려 노력하며) 이거 우리 레스토랑에서 파는 건데. 아가씨 배고파 보여서... 이거 먹고 다른 주차장 또 찾아봐.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비닐만 만지작대는 지유를 보며 그는 한숨을 한 번 쉰 뒤, 뒤를 돌아 몇 발짝을 뺐다. 그러나 다시 지유 쪽으로 몸을 돌려 다가온다.

셰프 복장 중년 남성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린 주차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을 마친 그는 지유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종종걸음으로 레스토랑으로 돌아간다. 아저씨가 떠난 뒤 다시 혼자가 된 지유가 아직 김이 새어 나오는 비닐을 열어 안에 든 도시락을 본다. 검은 사각형 도시락 트레이에 파스타와 함박스테이크 콕샐러드가 들어 있다. 지유는 비닐을 얼굴까지 들어 올려 힘없이 냄새를 맡는다. 그러곤 느릿한 발걸음으로 여전히 운전석의 문이 열려 있는 자신의 차에 탄다.

지유가 차 문을 닫고 창을 모두 올리자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곧이어 그녀의 차가 느릿느릿 움직이며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녀의 뒤로 화려한 레스토랑이 점점 작아진다. 주차장 입구에 다다르자 오늘 아침에 네온이 다 꺼진 채로 지유를 반겼던 레스토랑 홍보 간판이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을 자랑하며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S12. 주차장 부근 도로, 늦은 밤

칠흙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롯가에 회색 국산 저가 중형차 한 대가 서 있다. 주변엔 건물 없이 수풀만 우거져 있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 조용하다. 다만 가끔 지유가 흐느끼는 소리와 짹고 작은 크락션 소리만이 들린다.

차 안의 지유는 어둠 속에서 핸들에 머리를 박고 최대한 소리를 짜내어 영영 울고 있다. 그녀의 몸이 잘게 떨린다. 지유가 머리를 크락션에 쿵쿵 박자 힘없이 뺑뺑거리는 소리가 난다. 지유의 눈물이 머리카락 끝에 매달린다.

그녀의 옆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들린다. 조수석 위 휴대폰이 밝게 빛난다. 화면 상단에는 '11 시 59 PM' 시각이 나타나 있고 그 아래에는 메시지 알림창이 떠 있다.

<recruit_restaurant@teamcook.com>

-팀쿡스 푸드 하반기 채용 결과 안내-

팀쿡스 푸드 하반기 채용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한정된 자리로 인해 귀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을...

휴대폰의 옆에는 다 먹어 깨끗하게 비워진 도시락통과 비닐이 가지런히 놓여있다.